

A photograph of a rocky coastline. In the foreground, there are large, dark, jagged rocks. A narrow beach made of small grey stones runs along the water's edge. The beach is littered with a significant amount of plastic waste, including blue and white plastic bottles and other debris. The background features a steep, rocky hillside with patches of green vegetation. The sky is blue with scattered white clouds.

바다를 지키는 일,
섬에서 시작합니다.



목차

01	(사)섬즈업 소개	4
	후원 & 협력	
	활동 & 연혁	
	운영진 소개	
02	히스토리	10
	섬마을봉사연합 (2017 ~ 2023)	
	(사)섬즈업 (2023.08~)	
03	언론보도	30
04	(사)섬즈업과 함께	36
	섬즈업과 함께 한 곳	
	명예의전당-빨간명찰	
05	후원가이드	52
	후원금이 쓰이는 방법	
	함께 하는 방법	

섬즈업 소개

사단법인 섬즈업은
섬과 무인도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섬은 육지의 쓰레기가 최종적으로 모이는 곳으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많은 해양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대양으로 흘러가기 전, 수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섬에서 10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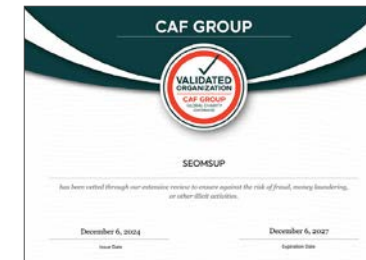


섬 + 빈쓰레기통 :: 섬 정화작업

thumbs up :: 삶과 환경개선 + 모두가 동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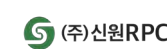
[CAF International Validated Organization]



(사)섬즈업은 CAF International로부터 인증을 받아
Global Charity Database에 추가된 비영리단체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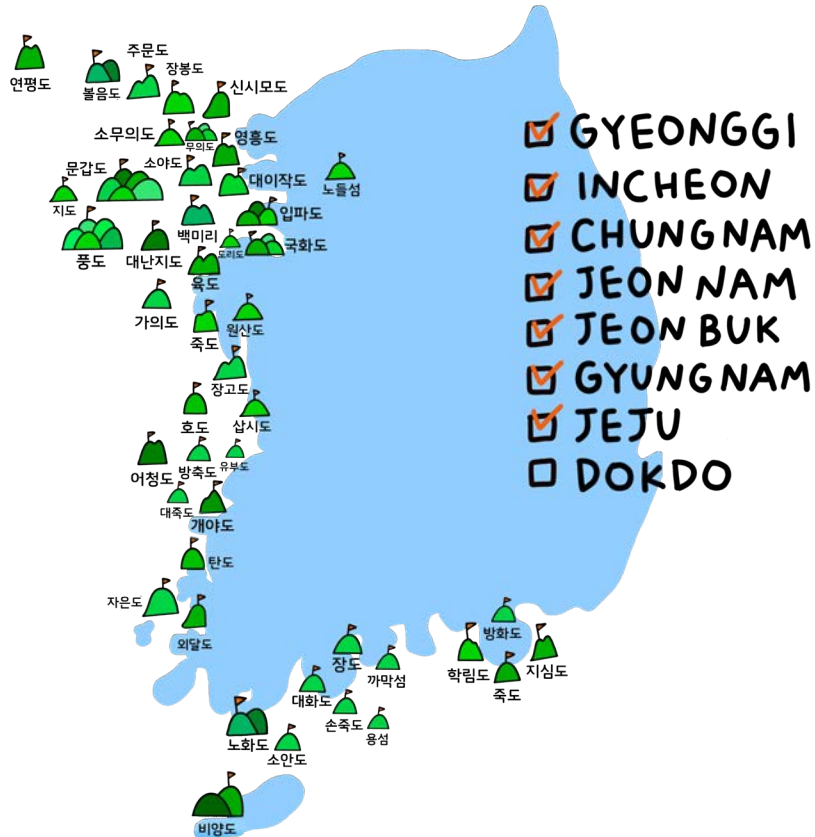
조직의 거버넌스 구조, 등록 상태, 연간 재무제표, 구성원 등
조직의 주요 운영 요소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등록이 이루어지며,
이는 단체의 모든 기금이 자선적으로 사용됨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후원 & 협력



사단법인 섬즈업

2016년 '섬마을봉사연합'이라는 이름의 대학생 동아리로 시작한 활동이 이어져
2018년 '임의단체',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2023년 '사단법인 섬즈업'으로
비영리 법인,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수요처 지정 단체가 되었습니다.



연혁



(사)섬즈업의 다양한 활동



해양정책 프로젝트 운영, 교육



해양환경 관련 세미나, 포럼 참여

[2024]

- KT&G-오션 해양생태계보호프로젝트 참여
- 여수시 해양쓰레기 관리 개선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 참여
- 비오템-오션 바다환경보호 워터러버캠페인 참여
- JYP-오션 러브어스챌린지 프로젝트 참여
- 2024 한국해양재단 바다지기 후원사업 참여
- 자원봉사진흥위원회 2024자원봉사진흥계획 심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3차 해양쓰레기_젊은 연구자를 위한 '해쓰단당' 세미나 발제

[2025]

- 2025 환경재단 바다쓰담 캠페인 참여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6차 해양쓰레기_젊은 연구자를 위한 '해쓰단당' 세미나 발제
- 민간과 함께하는 무인도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 파타고니아 1% FOR THE PLANET 지원 환경 단체 선정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7차 해양쓰레기_젊은 연구자를 위한 '해쓰단당' 세미나 발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10차 해양쓰레기_젊은 연구자를 위한 '해쓰단당' 세미나 발제
- 2025 무인도서 관련 포럼 및 간담회 발제
- 2025 전남대학교·전남일보 공동 심포지엄 발제
- 2025 해양재단 바다지기 후원사업 참여
- 2025 무인도서 관련 포럼 및 간담회 발제
- 2025 전남대학교·전남일보 공동 심포지엄 발제

사단법인 섬즈업의 운영진은
연구원, 한의사, 콘텐츠디렉터, 포토그래퍼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승철

현) 전남대학교 무인도서연구센터 전문연구원
현) 원광디지털대학교 외래교수
전)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객원연구원
전) 국무총리 소속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민간위원
전) 한국섬진흥원 정책자문위원

[연구]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한국고유종 20종 등재(2022-2024)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무인도서 이용 현황 및 시사점 연구
(한국해양에너지학회, 2020)
- The genus *Sipyloidea* Brunner von Wattenwyl,
1893 from Laos (Phasmida : Lonchodidae : Necroschiinae)
(한국응용곤충학회, 2021)



이준호

(사)섬즈업 운영이사
스냅허브 대표사진작가



홍종호

(사)섬즈업 운영이사
에이치픽 대표사진작가



김승규

(사)섬즈업 운영이사
현) 광고경육당한의원 대표원장
현) 경기도한의사회 학술이사
현) 세명대학교 겸임교수

히스토리

섬마을봉사연합 IVU (2017 - 2023)



(사)섬즈업의 전신인 섬마을봉사연합은
2017년 인천 옹진군 문갑도에서 처음으로 섬봉사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섬의 해양쓰레기를 줄는 활동 이외에도
한방의료, 장수사진 촬영, 벽화 그리기, 유실도로 복구, 선착장 간이도서관 만들기,
미용봉사 등 섬 주민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한방의료



주거환경개선



장수사진촬영



벽화그리기



해안마을미관개선



미용봉사



경작지환경정비



산사태유실도로복구



간이도서관만들기



2017 - 2018



2017.10.10 - 10.11

문갑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2018.01.30 - 01.31

문갑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2018.06.23 - 06.24

문갑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2018.08.25 - 08.26

풍도

경기도 안산시



2018.02.27 - 02.28

문갑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2018.03.25 - 03.26

문갑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2018.09.09 - 09.10

풍도

경기도 안산시



2018.10.20 - 10.21

풍도

경기도 안산시



2018.04.29 - 04.30

비양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8.05.19 - 05.20

대이작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2018.11.17 - 11.18

풍도

경기도 안산시



2018.12.08 - 12.09

국화도

경기도 화성시



2019.01.19 - 01.20 죽도
충청남도 홍성군



2019.02.16 - 02.17 장봉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2019.06.15 - 06.16 지심도
경상남도 거제시



2019.08.17 - 08.18 죽도
경상남도 통영시



2019.03.16 - 03.17 문갑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2019.04.20 - 04.21 입파도
경기도 화성시



2019.09.21 - 09.22 자은도
전라남도 신안군



2019.09.28 - 09.29 국화도
경기도 화성시



2019.05.18 - 05.19 외달도
전라남도 목포시



2019.05.27 - 05.28 입파도
경기도 화성시



2019.10.19 - 10.20 국화도
경기도 화성시



2019.11.17 - 11.18 학림도
경상남도 통영시

2020 - 2022



2020.07.19. 소무의도
인천광역시 중구



2021.11.20. 신시모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2022.04.17. 영흥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2022.05.21. 입파도
경기도 화성시



2022.06.18. 대난지도
충청남도 당진시



2022.07.16. 볼음도
인천광역시 강화군



2022.08.20. 백미리
경기도 화성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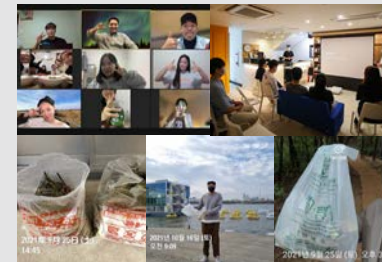
2022.09.17. 연평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2022.10.15. 볼음도
인천광역시 강화군



2022.11.19. 소야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비대면플로깅 (*COVID- 19)

COVID-19 거리두기 기간 동안, 개별적으로 각자의 지역에서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플로깅 후 온라인으로 느꼈던 점들을 공유하고, 활동 지역과 쓰레기 종류, 소감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 인천, 포항, 수원, 대구, 광주, 나고야 등



2023.03.18 - 03.19

충청남도 보령시

호도



2023.04.15 - 04.16

충청남도 태안군

가의도



2023.05.20 - 05.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비양도



2023.06.17 - 06.1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야도

01 섬조업 소개

02 히스토리

03 언론보도

04 섬조업과 함께

05 후원가이드



히스토리

2017년부터 섬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갔지만
매번 밀려드는 해양쓰레기를 모두 수거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 활동을 하는 것보다 섬의 해양쓰레기 문제에 집중하여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보자 생각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섬마을봉사연합은 2023년,
무인도서를 포함한 섬의 해양쓰레기에 집중하는
비영리 공익법인 사단법인 섬즈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사단법인 섬즈업 (2023.08 ~)



섬지역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해양쓰레기 수거 및 분석

2023



2023.08.19 - 08.20

여청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3.09.16 - 09.17

풍도

경기도 안산시



2023.10.21 - 10.22

노화도

전라남도 완도군



2023.12.02 - 12.03

장도

전라남도 보성군



2024.02.17 - 02.18 방축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4.03.16 - 03.17 탄도
전라남도 무안군



2024.04.20 - 04.21 노화도
전라남도 완도군



2024.05.14. 호도
충청남도 보령시



2024.05.18 - 05.19 삼시도
충청남도 보령시



2024.06.22 경포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4.07.20. 원산도
충청남도 보령시



2024.08.17 - 08.18 소안도
전라남도 완도군



2024.09.22. 무의도
인천광역시 중구



2024.10.19. 노들섬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4.11.16. 유부도
충청남도 서천군

무인도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

사단법인 섬즈업은 2025년 5월,
해양환경공단(KOEM)과 무인도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무인도서에서도 정화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힘을 모아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의 정기적인 정화활동과 무인도서 해양환경 캠페인,
기타 해양환경보전 국민 인식 강화와 성과확산에 함께합니다.

민간과 함께하는 무인도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 식

2025.5.14.(수) 장소 : 해양환경공단 본사 KOEM 해양환경공단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섬즈업



01 섬즈업 소개

02 히스토리

03 사업

04 섬즈업의 미래

05 후원가이드





2025.03.15. 대죽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5.04.20 - 04.21 지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2025.05.17 - 05.18 손죽도
전라남도 여수시



2025.06.21.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2025.07.19.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2025.08.29 - 08.30 방화도
경상남도 통영시



2025.09.13 - 09.14 대화도
전라남도 완도군



2025.10.18. 도리도
경기도 화성시



2025.11.15 - 11.16 용섬
전라남도 여수시

이를 토대로 섬 지역 해양쓰레기의 발생량과 종류, 무게 등을 파악하여 조금이나마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illegible]



“남극 빙하 부서지는 소리에 충격 섬 해양쓰레기 줍는 청소부 됐죠”

섬마을봉사연합 윤승철 대표
극지 바다로 갔다 환경 심각성 체험
회원 120명·섬 21곳 쓰레기 수거
“쓰레기 치우는 사람없는 섬, 감칠 맛”

지난 7월 8일 오전 인천 강화군 불음도 선착장. 여객선에서 우편계 초가을 입은 남해 20여 명이 섬으로 내려왔다. 목장갑을 끼고 갈매기 포대 봉지를 든 이들은 갈매기 모자의 리더를 따라 북동부 해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4시간 뒤 다시 선착장으로 돌아왔을 땀 앞에는 우유 팩, 캔, 폐그릇 등 각종 쓰레기로 가득했다. 등에 걸린 푸른색 조끼는 원으로 용변의 뜻이었다.



윤승철(가운데)은 2019년부터 섬마을봉사연합을 만들어 계속 활동 중이다. 지난 6월 총선 당선 인사차 도 봉사당사의 윤씨, 한의사 김승규, 사진작가 홍준호, 이준호(왼쪽부터)도 함께했다. (사진 윤승철)

250km를 달린다. “연평균 내기 극지를 떠나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목표를 세운 그는 다시 태어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재활 쓰레기를 2개월 2kg 달 리기와 5kg 걷기를 반복했다. 해안에서 22개섬을 바다 30-1거리를 10km를 달릴 수 있게 됐다고 한다.

문제는 4000원 가까이 되는 장가 비용이었다. 극지 마인드는 이집트, 사 이라비아, 중국, 고비사막, 황해 아타카 마사막, 남극을 모두 달라는 그랜드 슬 램으로 인정한다. 자신을 자비에 달라 는 제안서를 기업들에 보냈고 소심한 편 을 시작했다. 소심한 편이 승용하고 7월 후반기에 이르러서 참가비를 마련할 수 있 었다. 윤씨는 2022년 12월 3일 세계 최전 소 극지 마인드 그랜드 슬램이란 타이 틀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윤씨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남해에서 텐트를 치던 어느 날 밤 10-15cm 강제로 평을 내며 부사지 는 병마를 보며 환경 문제가 심각하 다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 그날의 기억은 윤씨를 활동가로 이끌었다. 정대권 전 섬마을봉사연합은 정기 회원 120여 명이 활동하는 단체였다. 40여년 대니 는 전국 10여 개 섬, 총 800여명이 분 사 에 참여했다. 지난해엔 행정안전부 비영 리 민간단체로 선정됐다. 윤씨는 “잘 길 이 없다”며 “섬은 고령화, 말라한 교육, 의료 등 사회 문제가 가장 먼저 드러나 는 곳이다. 해양 쓰레기가 늘어치면 그걸 수거할 사람이 없는 곳이기도 하 다”고 말했다.

섬마을 봉사 연합은 2019년부터 섬마을봉사연합을 만들어 계속 활동 중이다. 지난 6월 총선 당선 인사차 도 봉사당사의 윤씨, 한의사 김승규, 사진작가 홍준호, 이준호(왼쪽부터)도 함께했다. (사진 윤승철)

해양환경 보호 앞장서는 섬 환경 지킴이 ‘섬즈업’ “가장 소외된 섬과 무인도에 찾아가 해양쓰레기를 줍습니다”

섬마을 봉사연합회 “찾아가는 섬마을 봉사활동” 펼쳐
무인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왜?



섬이 나눔의 최우선이 돼야 하는 이유

가성비의 잣대로 보면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사) 섬즈업 봉사자들은 제법 많은 자비를 들여 아주 먼 섬으로 가서 매우 낯선 일을 하고 온다. 널려있는 해양 쓰레기를 치우는 것으로 황금 같은 주말 시간을 몽땅 써 버리는 것이다. 고박 이들을 그렇게 보내고도 모두 환하게 미소 짓는다. 섬의 노부신 풍경이, 주민들의 따뜻한 환대가 도시에서의 스트레스를 말끔히 없애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결국 ‘남’은 장사다. 가성비가 가장 높은 행복은 나눔에 있다는 걸 그들은 이미 경험으로 안다.

“2016년 2월 ‘섬마을봉사연합’이라는 동아리로 출발했어요. 2021년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를 거쳐 지난해 말 비영리사단법인 섬즈업으로 해양수산부의 인가를 받았고요. 섬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해오다 현재는 해양 쓰레기 수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해양 쓰레기는 섬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결해 나가려 해요.”

사진: 섬즈업 봉사자들은 건물 보수처럼 섬 주민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재능기부로 해결한다.

(사)섬즈업은 여행작가인 윤승철 이사장, 사진작가인 홍준호 운영이사, 한의사인 김승규 운영이사, 콘텐츠 디렉터인 이준호 운영이사가 공동으로 창립했다. 네 사람의 인연은 대학생 때 시작됐다. 한 대기업에서 마련한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났고, 자원 봉사를 하고 있다는 공통점으로 금세 가까워졌다. 섬에서 봉사하자고 제안한 건 그 무렵 섬 여행에 매료돼 있던 윤승철 이사장이다. 그의 제안을 세 사람은 흔쾌히 수락했다. 해양 쓰레기 제거, 장수 사진 촬영, 한방진료, 연탄 나눔 등 각자 해오던 봉사활동을 섬에서 함께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섬의 풍경이 좋았어요. 그 아름다움에 빠져 여러 섬을 여행해 보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의료와 교통, 교육 같은 인프라가 거의 없는 데다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곳이 바로 섬이었어요. 가장 소외된 곳에서 가장 따뜻한 나눔을 펼치는 게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예요.”



사진: 섬즈업을 창립한 여행작가 윤승철, 한의사 김승규, 사진작가 홍준호, 콘텐츠 디렉터 이준호 씨(왼쪽부터)



2025.10.31. **진일보**
"쓰레기로 뒤덮인 남도 바다, 시민들이 지킨다"



2025.08.29. **여업 in 수산**
2025년 무인도서 해양정화 캠페인 실시



2025.05.14. **뉴스1**
해양환경공단, 무인도서 해양환경 개선 위해 민간과 협력 강화



2025.04.23. **여업 in 수산**
수협중앙회, 해양정화 활동을 '일상 문화'로 만든다



2024.12.12. **소셜임팩트뉴스**
"가장 소외된 섬과 무인도에 찾아가 해양쓰레기를 줍습니다"



2024.11.20. **여업 in 수산**
수협중앙회, 섬 플로깅으로 해양 정화활동 펼쳐



2024.11.05. **광주매일신문**
GS칼텍스, 여수 무인도 해양정화 활동



2024.01.12. **데일리 굿뉴스**
해양환경 보호 앞장서는 섬 환경 지킴이 '섬즈업'

News & Magazine



2024.05. **살맛나는세상**(코오롱 오운문화재단)

나눔의 바다로, 희망의 섬으로



2022.09.05. **중앙일보**

'극지 마라톤' 최연소 성공...남극 '찍' 소리가 바꾼
청년 운명 [별★터뷰]



2024.01.03. **시민일보**

(사)섬즈업 출범식 개최, 섬마을봉사연합의 새로운 시작



2022.03.18. **이코리아**

무인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왜?

01 섬즈업 소개

02 히스토리

03 언론보도

04 섬즈업과 함께

05 후원가이드

Broadcast



2024.08.14. **EBS "한국기행"**

나만의 여름나기- 섬에서 봉사하며 여행을



2024.03.29. **MBC "모두의 챌린지"**

해양쓰레기가 모이는 곳 '섬 플로깅 챌린지'



2019.10.30. **MBC "나누면 행복"**

쓰레기 찾으러 섬으로 떠나요



2019.10.04. **KBS "6시 내고향"**

경기 화성 국화도편 - 섬마을봉사연합 IVU



2019.09.03. **연합뉴스TV "아름다운 사람들"**

외딴섬으로 봉사활동 떠나는 남자



2018.07.06 **KBS "6시 내고향"**

인천 옹진 문갑도편 - 섬마을봉사연합 IVU

섬즈업과 함께

(사)섬즈업과 함께한 곳



(사)섬즈업은 섬의 해양쓰레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번거롭고 많은 힘이 드는 일임에도 끝없이 밀려드는
섬의 해양쓰레기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섬즈업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함께 할 날이 오길 기다리겠습니다.



01 섬즈업 소개

02 히스토리

03 언론보도

04 섬즈업과 함께

05 후원가이드



2020년 처음 시작된 반려해변은
반려동물처럼 해변을 아끼고 가꾸는 취지의
해양 정화 프로그램입니다.
특정 해변을 기업 및 단체가 입양하여 지속적으로 보호해나갑니다.

사단법인 섬즈업은
참여기관의 해변 정화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부터 현장 동행 및 활동 안내, 결과보고서까지 안내하는
반려해변 코디네이터 기관입니다.



한국은행



일시	프로젝트	형태
2025. 05. 15.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선녀바위해변	반려해변 정화활동
2025. 10. 15.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실미해변	
2025. 11. 04.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선녀바위해변	

KT&G



일시	프로젝트	형태
2025. 06. 13.	전라남도 영광군 가마미 해수욕장	반려해변 정화활동
2025. 09. 26.	전라남도 영광군 가마미 해수욕장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공단 & 국시모



일시	프로젝트	형태
2025.08.29 - 08.30	25년 무인도서 해양정화 캠페인	연합 해양정화활동

유익컴퍼니



일시	프로젝트	형태
2025. 05. 17 - 05.18	유익컴퍼니와 함께 하는 정기봉사	연합 해양정화활동

GS칼텍스



일시	프로젝트	형태
2024.10.26 - 10.27.	GS칼텍스 바다쓰레기 소탕 프로젝트	기업 CSR프로그램 운영

한국GM



일시	프로젝트	형태
2022.11.18.	'지엄한마을재단'과 함께하는 해양정화	기업 CSR프로그램 운영

수협중앙회



일시	프로젝트	형태
2024.11.16.	수협중앙회와 함께 하는 정기봉사	연합 해양정화활동

한국섬진흥원



일시	프로젝트	형태
2024.07.20.	제5회 섬의 날 기념 섬 정화 활동	연합 해양정화활동

전라남도 해양수산국



일시	프로젝트	형태
2023.12.02. 2024.03.16. 2024.08.17.	전남 섬코디네이터 연계 섬 체험단 운영 전남 섬코디네이터 연계 섬 체험단 운영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 x (사)섬조업 등	연합해양정화활동

인천관광공사



일시	프로젝트	형태
2022.09.17.	인천관광공사와 함께하는 인천평화관광	기관 프로그램 운영

청주공업고등학교, 보은중학교, 수곡중학교



일시	프로젝트	형태
2022.09.22. 2023.05.30. 2024.05.14.	청주공업고등학교 인문독서체험 보은중학교, 수곡중학교 현장체험학습 청주공업고등학교 인문독서체험	학교 프로그램 운영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일시	프로젝트	형태
2019.08.29 - 08.30.	2019년 학생자치회 하계 리더십캠프	학교 프로그램 운영

명예의전당 - 빨간명찰



빨간명찰은 (사)섬즈업과 함께 10회 이상 활동한 분들에게 감사장, 개인 조끼와 더불어 지급하는 명찰입니다.

빨간명찰 회원은 처음 참가한 봉사자들의 활동을 돕고, 장비를 챙기거나 운영에 도움을 주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2026년 01월 현재 23명의 빨간명찰 회원이 있습니다.



01 섬즈업 소개

02 히스토리

03 인문지리

04 섬즈업과 함께

05 후원자



첫 참가일
2018.05.19. 인천 용진군 대미작도

40번째 참가일
2024.11.16. 충남 서천군 유부도

노여진 (최다 참가자)

Q1. 섬즈업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해양레저를 하며 해안에 쌓인 페어구, 부표나 일대에서 나온 플라스틱 등 다양한 해양쓰레기들이 많은 것을 봐왔어요"

그러던 중 섬 탐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윤승철 단장님의 SNS에서 섬즈업의 활동을 보고 좋은 풍경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참여하게 된 것이 2017년이었습니다.

Q2. 40회 이상 섬즈업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매번의 섬 정화활동이 색다르고 의미 있지만, 의외로 기억에 깊게 남는 건 각 섬의 제철 특산물을 먹을 수 있는 섬 밥상이에요."

생선이나 나물 등 민박집 사장님께서 정성스레 준비해 주신 식사를 먹고 나면 정화활동의 힘들어 씻겨 나가는 느낌이 든답니다. 호도, 임파도의 밥상은 두고두고 생각나더라고요.

Q3. 섬즈업에서의 경험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스스로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최대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꼼꼼하게 하면서 일상에서도 소소한 환경보호를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흘린 것이 아니더라도 종종 바닥의 쓰레기도 줌게 되더라고요. 사소한 실천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달까요.

Q4. 섬즈업 활동을 추천한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이 주는 뿌듯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평소에는 누리지 못할 아름다운 섬 풍경에서 좋은 사람들과 보내는 즐거운 시간은 덤이고요. 봉사를 하러 섬에 가지만 매번 힐링을 하고 옵니다. 꼭 한 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막막한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점에서 제 삶에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첫 참가일
2018.03.25. 인천 용진군 문갑도

20번째 참가일
2025.02.19. 인천 용진군 지도

최진호

Q1. 빨간명찰 회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요?

"봉사자들이 활동을 잘 이해하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섬즈업의 활동을 즐거운 추억으로 남길 수 있게끔 돕는 것입니다."

활동이 섬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많은 시간과 돈이 듭니다. 그렇기에 참가한 봉사자들이 최대한 만족하고 최고의 경험으로 남을 수 있게 운영진을 돕는 것도 또 다른 봉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2. 섬즈업 활동이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섬즈업은 저에게 단순 봉사활동이 아니라 어떨 땐 여행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땐 현실에서 잠깐 떨어져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제 삶의 일부입니다."

해양 미세 플라스틱 줄이는데 기여하고, 섬 주민들을 도와 환경을 지키는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섬즈업에서의 활동이 본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항상 느낍니다. 단순 봉사활동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자신도 성장한다고 느낍니다.

Q3. 봉사를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요?

"환경을 개선하는 거대한 문제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 여러 봉사자가 힘을 합쳐 섬 환경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여러 차례 경험하였습니다. 비록 작지만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Q4. 섬즈업 활동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섬즈업 활동이 오랜 기간 이어져 언젠가는 제 자식들과 함께 참여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2016년부터 봉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때 참여했던 분이 시간이 흘러 벌써 아이들과 함께 오시는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다가올 10년, 앞으로의 10년, 나아가 모든 섬의 해양쓰레기가 없어지는 날까지 이어가길 바랍니다.



첫 참가일
2018.05.19. 인천 웅진군 대이작도

10번째 참가일
2024.10.19. 서울 노들섬

이혜림 (환경전문가)

Q1. 섬즈업의 활동에 7년째 동참 해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섬즈업은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데 그치지 않고, 섬 환경을 데이터로 분석하며 장기적인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섬즈업은 보다 낮은 진입장벽으로 섬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 온 사람들까지 해안정화활동을 중심으로 함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Q2. 섬즈업 활동이 학업에도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요?

“실제 환경 문제를 현장에서 접하며 이론을 넘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하게 됐어요.”

스웨덴에서 지속가능성과학을 전공하며 해외케이스를 주로 연구하면서도 오히려 섬즈업을 통해 경험한 우리나라 섬의 환경적 가치를 떠올리게 되었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Q3. 해외에서도 많은 봉사를 하셨는데 섬즈업의 활동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섬즈업은 지역 주민과의 협업이 뛰어나고,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 인상 깊어요.”

섬이라는 변수가 많은 상황에 체계적인 운영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또 주로 사람을 통해 섬을 섬입하고 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봉사를 하다 보니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4. 환경보호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섬즈업을 추천한다면, 어떤 점을 강조하시겠어요?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점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우선 재미있습니다. 멋진 사람들과 행복한 여행에 보람도 있습니다. 섬즈업에서 땀 흘려 쓰레기를 줍고 깨끗해진 해변을 바라보면 내 손으로 이루는 작은 성취감을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참가일
2019.06.15. 경남 거제시 지심도

30번째 참가일
2025. 07.19. 인천광역시 영종도

정재훈

Q1. 섬즈업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섬에 가서 해양쓰레기를 치우는 봉사도 알고 갔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군요”

해양쓰레기는 물론 섬 주민분들이 요청하는 일들도 함께 하는 것이 인상 깊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에는 버거운 일들을 봉사자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처음, 통영 학림도에 갔을 때 장마로 막힌 마을의 배수구를 정리했던 적이 있어요. 한여름이었는데 곡괭이로 막힌 배수구 파내고 리어카로 파낸 돌들 나르는데, 그 일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과 그런 노가다를 하는데 아무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더군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라서 매번 오는 것 같습니다.

Q2. 다양한 연령의 봉사자들이 함께하는데 어려운건 없으셨나요?

“농담 삼아 섬에서 환갑잔치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이에 활동에 어려운점은 없었어요. 아버지나 삼촌 쯤 되는 나인데 저 보고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제일 많이 듣는 호칭이 형님이요, 그 다음은 형 이게 답니다. 그러면서 경로우대랍시고 깍듯하게 잘 챙겨주는 게 저로서는 고맙고 오히려 힘이 나죠.

Q3. 섬즈업의 활동이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한 달에 한 번씩 배 타고 섬에 가서 해양쓰레기를 줍고, 마을 주민들이 해 주시는 밥을 먹고, 기회가 되면 섬 주민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함께 간 사람들하고 수다 떠는 게 전부인데 나이가 많다고 힘들게 있겠어요. 사람 좋아하고, 배 타는 데 문제없다면, 한 살배기 든 백 살이 넘는 노인이든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후원가이드

후원금이 쓰이는 방법

(사)섬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개인 또는 단체의 후원금은 섬조업의 활동을 이어나가고,
섬 해양쓰레기 문제실태의 상황을 알리는 목소리를 내는데 사용됩니다.

젊은 세대들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교육을 하기 위한 움직임도 준비 중입니다.



사무실 임대 비용
(사)섬조업의 사무공간
운영을 위한 임대비용



육로 이동 비용
항구로 이동 시 발생하는
단체 버스비 등 육로 교통비용



답사 비용
정화활동 예정지의
사전 방문 및 현장 점검 비용



여행자보험 가입 비용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보험 비용



창고 비용
활동 장비 및 후원물품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포럼 및 학회 참석
해양환경 관련 정책·학술
포럼 및 외부 협력 행사 참여

모든 후원금은 다음해 초에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시하고 있습니다.

섬 해양정화가 어려운 이유



태풍, 비, 안개, 파고, 물때 등과 같은
기상악화 예측의 어려움



항구로 이동하는 불편한 교통편
먼 이동거리, 주차문제



섬 내에서 정화활동지
이동&접근의 어려움



배 시간에 맞추어야 하는 일정
1박 2일 이상의 많은 소요시간 필요



왕복승선료, 높은 숙식비용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



육지 숙박, 편의시설에 비해 다소 불편
쓰레기 수거 후 정해진 장소로 운반의 어려움

01 섬조업 소개

02 히스토리

03 언론보도

04 섬조업과 함께

05 후원가이드



Q&A

Q : (사)섬즈업에서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사)섬즈업은 온라인 모집 링크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가신청 방법 및 일정 공지는 소개서 마지막 페이지의 QR코드를 확인 해 주세요.

Q : 봉사시간 인정이 되나요?

A : (사)섬즈업은 1365자원봉사 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 봉사시간 등록이 가능합니다.

Q : 회비(참가비)가 있나요?

A : (사)섬즈업의 모든 실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봉사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계산하여 참가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Q :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A : (사)섬즈업은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로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Q :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 일정은 보통 한 달 전 공지되며 주로 1박 2일로 진행되지만, 상황에 따라 당일 일정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SNS공지 채널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Q : 참여에 연령 제한이나 인원 제한이 있을까요?

A : 활동에 연령 제한은 없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안전을 위해 보호자와의 동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별도의 인원 제한 역시 없으므로 혼자 오셔도 무방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참가신청 & 섬즈업에 대해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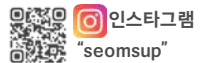
섬즈업에 후원하는 방법



궁금한게 있어요!



Ch 카카오톡채널
"섬즈업"



인스타그램
"seomsup"



공식홈페이지
www.seomsup.org

후원계좌

우체국 110-0014-62422 사단법인섬즈업

01 섬즈업 소개

02 히스토리

03 언론보도

04 섬즈업과 함께

05 후원가이드





